

예수님처럼 마음을 주라

■ 본문

빌 1:3-8

■ 시작 찬송가

64, 85, 289장
(통 13, 85, 208장)

■ 헌금 찬송가

430, 453, 455장
(통 456, 506, 507장)

▶ 심장

1. 성경에서의 심장

- 1)몸의 기관(염통)
(삼하 18:14)
- 2)중심이나 중추의 비유
(시 7:9, 렘 11:20)
- 3)열정적이고 사모하는 마음
(빌 1:7-8)

▶ 마음

1. 예수님의 마음

- 1)온유
(마 11:29)
- 2)겸손
(마 11:29)
- 3)탄식
(막 8:12)
- 4)순종
(빌 2:5)

사람들과의 관계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더욱 개인주의로 변하고 있고, 각자의 개성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와 만남을 가지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이 다가올 때 긍휼히 여기셨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않으셨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만 봐도 우리는 관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심장

본문 8절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 하나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빌립보교회를 사모하는 것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신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빌 1:8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러한 점에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게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관계의 중요한 원리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바울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아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내 마음 전부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얻기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빌 1:7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교회는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 간 곳이 마게도냐의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의 하나는 사람들을 얻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같이 먼저 마음을 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행 16:10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이 마음을 주는 구체적인 세 가지 모습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마음을 주는 구체적인 모습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야 말로 우리가 마음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 사람이 내 삶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등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입니다.

빌 1:3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4절 말씀에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사람들을 생각만 해도 기쁘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만났을 때 기뻐하면 그 사람에게 이미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빌 1:4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세 번째는 칭찬입니다. 최고의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칭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우리도 칭찬할 수 있고, 우리의 칭찬도 받는 이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실에 근거하여 칭찬해 주셨고, 사실보다 훨씬 더 크게 칭찬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내가 너에게 간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나다나엘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칭찬해야 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칭찬해야 합니다.

요 1:47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세 가지 관계의 원리

바울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 세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주지 않고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마음을 다 내어주셔서 아무리 우리가 배반하고 떠나갈 지라도,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시고 돌보셨습니다.

요일 4: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우리가 먼저 마음을 주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행 20:35 법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머무는 곳에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한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오래 머물렀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진심으로 그들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왕이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았고, 백성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잠깐 전장에 나왔지만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머무는 곳에서 마음을 주고,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삼상 18:7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 만이로다 한지라

세 번째 “몸이 떠나도 그곳에 마음을 두라”입니다. 우리의 몸이 떠날지라도 마음은 그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빌립보교회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교회, 에베소교회, 골로새교회 등 많은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잠깐 섬기고 다 떠났지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떠난 곳에 마음을 주는 방식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빌립보교회를 위해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항상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녀들과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회사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빌 1:9-11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의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성도 됩시다!

공동기도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외교,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

2. 성도가 가져야할 마음

1)회개하는 마음

(시 34:18, 시 51:17)

2)부드러운 마음

(왕하 22:19)

3)넓은 마음

(시 119:32, 왕상 4:29)

4)청결한 마음

(신 24:4, 시 66:18)

5)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고전 2:16, 빌 2:5)

6)기도하는 마음

(삼하 7:27)